

2023-01-09 (2023-01호)

01월 09일 로이터 뉴스레터

▶ 달러/원 주간 전망

• 달러·증시, 원화 추세 전환 신호 강화할까... 새해 첫 금통위 주목

서울, 1월9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약세와 증시 강세 지속성을 살피며 추가 하락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240-1,280원이다.

미국의 작년 12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 결과를 바탕으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가 충족되면서 달러 가치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미국의 12월 시간당 평균임금이 전월 대비 0.3% 상승해 11월과 로이터 전망치인 0.4%를 밑돌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11월 4.8%보다 낮은 4.6% 오른 것으로 나타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정책 전환 기대 속 위험 자산과 통화들은 랠리를 전개했다.

달러/원 환율은 전 주말 역외 거래에서 1,250원대 초반으로 내려앉으며 추세 전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중 나올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 지표 결과가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에 힘을 더하고 이에 달러가 한 번 더 약세 압력을 받는다면 달러/원은 추세 전환에 공격적으로 임할 공산이 크다.

한편, 미국 물가 지표 발표에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스웨덴 중앙은행 개최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인데, 통화 정책 기초와 관련해 어떤 발언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또한, 여러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반적인 약달러 전망에도 연초에는 달러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았는데 이같은 시장 전망의 수정 여부와 더불어 국내외 증시 동향은 원화에 있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원화는 반도체 주가 강세에 힘입어 상단 저항력을 강화했다. 새해 첫 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1조원을 순매수했고, 이는 환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금주에도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주가와 환율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매수 행진이 이어질 수 있고, 이러한 상황 따라 원화는 강세 시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여지도 있다.

외국인 주식 매수에도 저점 결제 수요에 새해 첫 주 수급 구도가 대체로 균형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지만, 외국인 주식 매수세가 확대될 경우 수급 무게중심이 아래로 이동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렇다면 시장 심리도 아래쪽으로 좀 더 기울어질 여지도 충분하다.

한편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갈 경우 엔화 강세 속도가 가팔라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요인이다.

중국 코로나 확산 우려가 잠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듯했지만 중국 정부 정책 기대감이 시장 심리를

돌려세우는 상황 가운데 위안화가 지속적으로 강세 시도에 나설지도 고려해야 한다.

중국 12월 물가 지표를 비롯해 수출입 지표가 이번 주중 발표되지만, 이에 따른 결과보다는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유지될지가 더 관건이다.

한편 금주는 올해 첫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다. 현재로서는 25bp 금리 인상에 무게가 실리지만, 경기 악화 추세 속에서 통화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 금리 결정을 두고 시장은 긴장감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국제수지(잠정)를 발표하고, 추경호 경제 부총리는 외신기자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편집 유춘식 기자)

((Yena.Park@thomsonreuters.com ; Reuters Messaging: Yena.Park.thomsonreuters.com@reuters.net))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2.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1월9일(월)

- ⊙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09:00)
- ⊙ 통계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14:30)

1월10일(화)

- ⊙ 한국은행: 2022년 11월 국제수지(잠정) (08:00)

1월11일(수)

- ⊙ 관세청: 1.1~10일 수출입 현황
- ⊙ 통계청: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08:00)
- ⊙ 기획재정부: 세계은행 '23년 세계경제전망 발표 (09:00)
- ⊙ 기획재정부: 202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분석 (09:00)
- ⊙ 금융위원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업계 간담회 (14:00)

1월12일(목)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기획재정부 - 인천광역시 ADB연차총회 업무협약 체결 (10:00)
- ⊙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1월호) 발간 (10:00)
- ⊙ 한국은행: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 동향 (12:00)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 (12:00)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2년중 가계대출 동향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외신기자 간담회 (14:00)

1월13일(금)

- ⊙ 한국은행: 2022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 (06:00)
- ⊙ 금융감독원: 2022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 (06:00)
- ⊙ 기획재정부: 1차관 비상경제차관회의 (08:00)
-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 (09:00)
- ⊙ 기획재정부: 2023년 1월 최근 경제동향 (10:00)
- ⊙ 금융감독원: 원장 기관전용 사모펀드(舊 PEF) 운용사 CEO 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23년 중앙지방협의회 및 확대시도경제협의회 (10:10)
- ⊙ 기획재정부: 2차관 재정비전 2050 미래세대(청년 농업인·소상공인) 간담회 (10:30)
- ⊙ 한국은행: 총재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11:10)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1월 9일	18:30	유로존	센틱스지수	1월		-21.0
1월 9일	19:00	유로존	실업률	11월	6.5%	6.5%
1월 10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2월		117.65
1월 10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1월	25.00B	27.08B
1월 10일	08:30	일본	가계지출 YY	11월		1.2%
1월 10일	08:30	일본	도쿄 CPI	12월		3.8%
1월 10일	20:00	미국	NFIB 기업낙관지수	12월		91.90
1월 10-17일		중국	총 통화(M2) 공급 증가율	12월		12.4%
1월 10-17일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	12월		1,210.0B
1월 10-17일		중국	FDI (YTD)	12월		9.90%
1월 11일	00:00	미국	도매재고 수정치 MM	11월		1.0%
1월 11일	00:00	미국	도매판매 MM	11월		0.4%
1월 11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2월		1,226.3B
1월 11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1월		-0.9
1월 11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1월		0.4
1월 11일	21:00	미국	주간 모지기마켓지수	1월6일 주간		184.5
1월 12일	08:50	일본	은행대출 YY	12월		2.7%
1월 12일	08:50	일본	경상수지	11월		-64.1B
1월 12일	10:30	중국	PPI YY	12월		-1.3%
1월 12일	10:30	중국	CPI YY	12월		1.6%
1월 12일	22:30	미국	CPU MM, SA	12월	0.1%	0.1%
1월 12일	22:30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2일 주간		204k

1월 13일	04:00	미국	연방예산	12월		-249.00B
1월 13일		중국	수출	12월		-8.7%
1월 13일		중국	수입	12월		-10.6%
1월 13일		중국	무역수지	12월		69.84B
1월 13일	19:00	유로존	산업생산 MM	11월	0.5%	-2.0%
1월 13일	22:30	미국	수입물가 MM	12월		-0.6%
1월 13일	22:30	미국	수출물가 MM	12월		-0.3%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1월9일(월)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애틀랜타 로터리클럽 경제전망 회의 참석
(10일 오전2시30분)
- ⊙ 휴장국가: 일본

1월10일(화)

- ⊙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 스웨덴 중앙은행 개최 '중앙은행의 독립성' 행사 주재, 제롬 파월 연준 의장·구로다 하루키코 일본은행(BOJ) 총재·티프 맥클럼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 등 참석

1월12일(목)

- ⊙ 구로다 하루키코 일본은행(BOJ) 총재, 분기 지점장 회의 개회사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메인라인 상공회의소 2023 경제 전망 연례회의 연설
(오후 9시30분)
- ⊙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위스콘신 은행인 연합회 경제 전망 포럼 연설
(13일 오전 1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버지니아 은행인 연합회/버지니아 상공회의소 금융 전망 행사서 연설 (13일 오전 2시40분)

1월13일(금)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필라델피아 상공회의소 경제 전망 서베이 행사서 연설 (14일 오전 0시20분)

▶ **금주 세계 5대 이슈**

⊙ **美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이번 주 미국 증시에서는 주요 기업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시작된다. 투자자들은 경기 둔화가 기업 이익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것이다.

13일 웰스파고, 씨티그룹, 블랙록, 델타항공 등의 실적이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이다.

레피니티브 IBES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는 경기 침체 리스크를 감안할 때 이러한 수치도 여전히 너무 낙관적이라고 말한다.

오는 12일에는 미국의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도 발표된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올 경우 금리가 고점에 가까워졌다는 견해가 강화되고 올 후반 금리 인하 추측까지 나올 수 있다.

⊙ **日 도쿄 지역 인플레이션**

투자자들은 일본은행(BOJ)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일 도쿄 12월 인플레이션 지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작년 11월25일 발표된 11월 도쿄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3.6%로 40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전국 CPI보다 몇 주 앞서 발표되는 도쿄 CPI는 오는 18일 BOJ 정책회의를 앞두고 정책 전환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1일에는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줄 호주 11월 CPI도 발표된다.

지난 12월6일 호주 중앙은행 정책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당시 중앙은행은 50bp 또는 25bp 금리 인상안과 함께 금리 인상 중단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가 변동성 지속**

세계 최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연초 석유 시장은 급락세를 겪었다.

지난 3~4일 이틀간 브렌트유 하락률은 약 9.4%로 1991년 1월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 유예기간이 오는 19일로 끝나는 가운데 공급 부족 이슈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작년부터 유가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올해도 석유 생산국이나 소비국 모두에게 절대 평탄하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영국 11월 GDP**

오는 13일 발표되는 영국의 11월 GDP가 얼마나 감소했는지도 관심이다.

운송 및 공공 부문 파업, 주택시장 약세,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지출 부진은 영국의 경기 침체가 길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도이치은행은 올해도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2024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영국 경제가 2023년 3분기 말까지 수축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 **유로존 경제 회복 조짐**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에너지 가격 하락 영향에 둔화되고 있으며, 천연가스 재고가 늘고 기온은 온화한 수준을 나타내는 등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유로존 벤치마크인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작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얻은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다.

평균 연료 가격이 작년 중반 고점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긍정적 신호를 주고 있다.

경제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가 당초 예상만큼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분석)-올해 中 부동산 수요, 정책 지원 힘입어 점진적 회복 전망

홍콩, 1월6일 (로이터) -

중국 내 주택판매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부양책과 코로나19 제한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감소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국 주택판매는 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에 경제 활동, 가계 소득, 소비자신뢰지수 등이 개선되면서 작년 약 25% 감소보다 감소폭이 확연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들은 올해 중국 정부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주택 수요를 지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이런 부양책에는 모기지론 금리와 계약금 필요액을 추가로 낮추는 것과 중국 주요 도시들에서의 주택 매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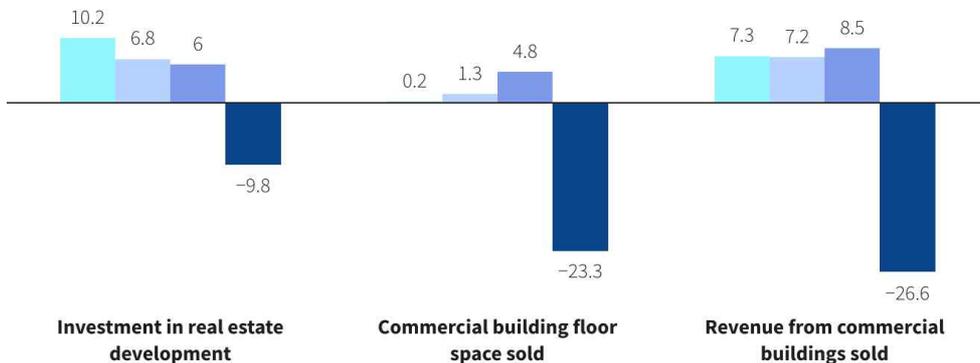
작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에 그쳐 거의 50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작년 12월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면서 올해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제로 코로나' 정책 폐기 이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어 최소 몇 개월 동안은 경제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hina property sector slump

China's real estate investment and sales contracted in 2022 as the property sector grapples with a debt crisis leading to dwindling investment from developers and home buyers.

January to November year-on-year growth in 2019, 2020, 2021, and 2022 (%)



Source: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 Reuters, Jan. 4, 2023 | By Kripa Jayaram

중국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은 작년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난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여기에 광범위한 코로나19 봉쇄조치와 해고조치로 인해 매수 심리는 더 얼어붙었다.

작년 11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9.9% 감소해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최고 감소율을 기록했다.

타오 왕 UBS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부동산 정책 완화와 리오프닝 등으로 주택판매와 신규주택착공 모두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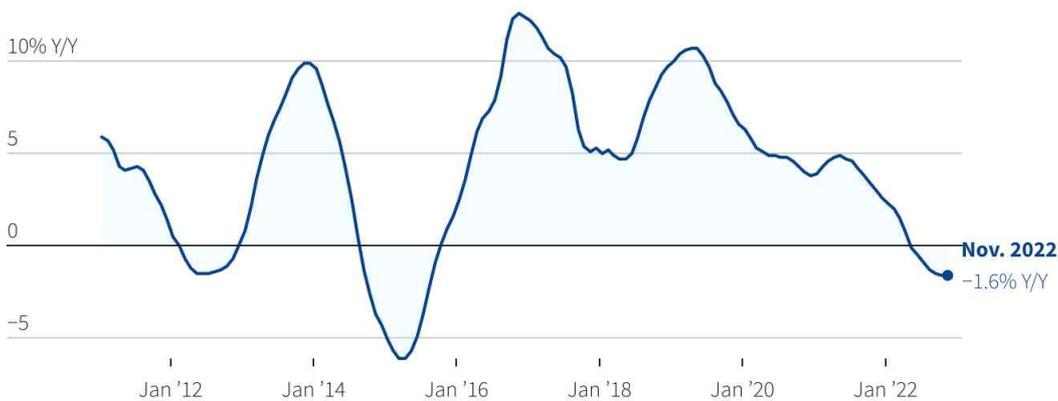
일부 지표를 보면 벌써 반등의 신호가 보이고 있다.

차이나인덱스아카데미(CIA)는 3일간의 신년 연휴 동안 중국의 신규주택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0%가 넘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CIA는 베이징과 상하이 등의 주요 도시들에서 해당 기간 전년 동기 대비 신규주택판매가 증가했다고 말하면서도, 대부분의 소도시들에서는 여전히 부동산시장 심리가 취약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China's falling home prices

China's new home prices fell for the seventh consecutive month in November as a heightened debt crisis and COVID-19 curbs weighed on homebuyers' sentiment.



Source: Refinitiv Datastream | Reuters, Jan. 4, 2023 | By Kripa Jayaram

팀 깁슨 야누스 헨더슨 인베스터스 글로벌 부동산 주식 공동팀장은 "시장은 긍정적인 정책을 잘 반영해 왔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요 측면을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올해 중국 주택판매가 5~10%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비관적인 전망도 존재한다.

씨티그룹은 일자리와 주택가격 전망이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신규공급 영향으로 올해 주택판매가 21%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셸던 찬 티로프라이스 홍콩지사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부동산 시장 회복이 생각보다 더딜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주택 수요가 저점에 가까이 왔을 수도 있지만 아직 저점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북 민간 경제 서베이에는 "부동산 시장을 도랑에서 건져내는 것에만해도 상당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주택 수요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업종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자금 사정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신규 부지 매입과 해외 채무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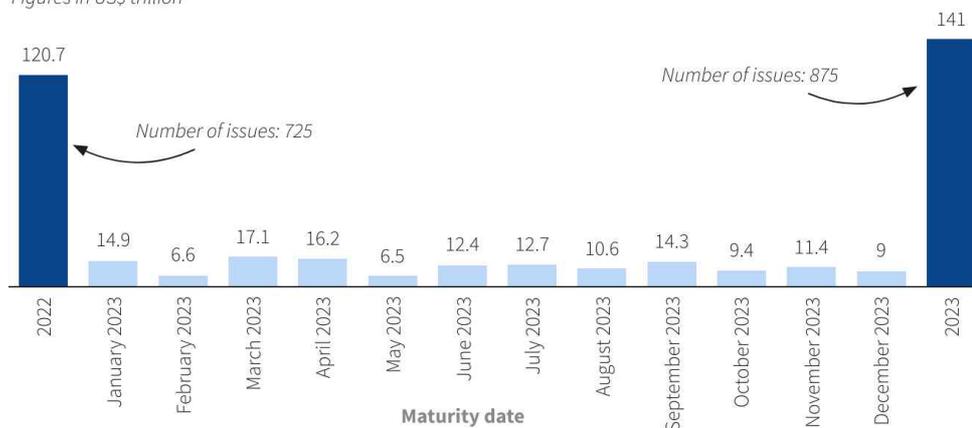
많은 민간 기업들은 작년에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고, 이는 올해 매도할 수 있는 부동산이 적음을 의미해 현금 흐름이 제한될 수 있다.

여기에 레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는 이들의 해외 채무 만기액이 1410억달러에 달해 작년 1207억달러보다 많다.

China real estate dollar bonds maturing in 2023

2023 sees another high wall of offshore bond maturities, and many developers have already defaulted.

Figures in US\$ trillion



Note: The figure represents the amount at issue and does not reflect redemptions and defaults. Data is as on 23 Dec. 2022.

Source: Refinitiv | Reuters, Jan. 4, 2023 | By Kripa Jayaram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국내·외 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가장 큰 문제는 견실한 담보자산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 3명이 로이터에 밝혔다.

코스모 장 본토벨 자산관리 신용 애널리스트는 올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더 많은 부채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가 아는 몇몇 기업들은 아직 디폴트 상태에 이르지 않는 않지만 향후 수 년 안에 자본구조를 지속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오신 기자)

((Ohshin.Gwon@thomsonreuters.com))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3.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주간 국내 및 세계 금융시장 변동폭

- 외환: 원(역내) -0.32%, 위안(역내) +1.12%, 유로 -0.54%, 엔 -0.73%, 달러지수 +0.40%
- 국내 주가: 코스피 +2.40%, 코스닥 +1.42%
- 미국 주가: 다우존스 +1.46%, 나스닥 +0.98%, S&P500 +1.45%
- 국내 국고채: 3년 -4.4 bps, 10년 -16.2 bps
- 미국 국채: 2년 -14.3 bps, 10년 -26.0 bps
- 원자재: 원유 선물(WTI) -8.09%, 금 선물 +2.26%, RF/CC CRB지수 -4.57%